

오락의 젊은 작가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장편소설





표지 그림: 정수진, 『Thursday』 (2006, Gallery Gaecheon, 50 x 60 cm)

형상이 가진 이중적 의미에 대해 탐구한 작품 중 하나로써 겉으로만 변화적으로 표현된 형상이지만 형상의 내재된 제형구조는 순수 추상에 대한 논리 구조를 가지는 그림이다. 이것은 이 세상이 수많은 개별적 사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질서와 균형을 위한 구조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교사
안은영

펴
낸
모
모
작
자

오늘의 젊은 작가 09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장편소설

민음사

사랑해 젤리피시

가
라
만
보
고
지
라

장마철의 보충수업 기간, 학교에 들어서면 순간 신발장 냄새가 진했다. 짧은 방학은 무더위 속에 지나가 버렸고 보충이 시작되자 모두 우울한 얼굴이었지만 사복이 허용되었으므로 옷 입는 재미로 버티고들 있었다. 그러나 승권은 그마저도 전혀 흥미가 없는 편이었다. 연하늘색 핀 스트라이프 반셔츠에 면바지가 승권의 최선이었고, 승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오직 하나였다.

혜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진학해 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별명이 해파리인 여자애였다. 그나마 좀 귀여운 어감인 젤리피시

로 불려서 다행이지, 해파리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승권은 늘 머리가 아팠다. 이 단순하고 모난 데 없는 사랑스러운 생물은, 불행히도 다른 사람한테서도 가장 좋은 부분만을 발견하는 나머지 누가 고백만 해 오면 족족 다 사귀어 왔다. 승권은 언제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벌써 2학년 1학기가 지나 버렸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마음먹자, 갑자기 웬 농구부 주장이 오늘 혜현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혜현이라면 그놈한테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빛나는 어떤 부분을 찾아낼 게 뻔했다.

너한테 필요한 건 키만 크고 얼굴이 여드름 발인 농구부 주장이 아니야. 매일 아침 눈빛만 봐도 네가 매점의 서른여섯 가지 간식들 중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아는 나라고. 승권은 농구부 주장보다 먼저 혜현을 찾아야 했다. 농구부 애들이 저 질퍽한 운동장에 하트 모양으로 꽃을 초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비나 와라. 비나 와 버려라.

1교시가 끝나자마자 과학실로 향했다. 분명히 과학실에 있을 것이다. 더위를 많이 타는 혜현은 과학실 돌바닥의 냉기를 좋아해서 먼지 나는 암막 커튼 아래에 늘어져 있는 습관이 있었다. 승권은 그 구석을 해파리 여름 서식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다.

“조승권, 어디 가? 너 오늘 지각했지?”

답임인 한문이 불러 세웠지만 승권은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했다.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다.

“성혜현.”

과학실 문을 열며 혜현을 불렀다. 어째서 성까지 붙여서 이렇게 딱딱하게밖에 부르지 못하는가. 혜현은 없었다. 벌써 늦었다. 10대 소년이 느끼기엔 다소 짙은 절망, 그 절망의 단내가 입안에 돌았다.

그때 뭔가 날카로운 것이 따끔, 목 뒤에 박혔다.

보건교사가 핀셋을 들고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빼냈다.

“뭐예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승권은 마음이 급했다. 목을 감싸 쥐고 보건실로 오는 길에 농구부 1학년 애가 기타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승권의 목 뒤에서 빼낸 것을 유심히 확인하며 입술을 약간 움직였는데, 승권에겐 언뜻 욕설처럼 읽혔다. 잘못 본 거겠지.

“상처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독성이 있을지 몰라. 벌써 주변부 색깔이 다른 게 염증이 생길 것 같아. 조퇴해서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몇 반?”

“2학년 1반이요.”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아뇨, 이따가 제가 허락받을게요. 혹시 허락 안 해 주시면 확인증 받으러 올게요.”

승권은 총알같이 보건실에서 뛰어 나갔다. 뒤에서 보건

선생님이 뭔가 만류하는 듯 웅얼거렸지만, 가시인지 뭔지를 뻗으니 됐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유난히 귀찮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자잘한 일은 있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오늘까지는.

은영은 남학생의 목에서 뽑아낸, 동물성 물질을 내려다 보며 작게 끓는 소리를 냈다. 욕이 되다 만 소리였다. 학교라서 매번 삼킬 뿐, 사실 은영은 욕을 잘하는 편이었다. 학생이 놀랄까 봐 차마 말을 못했지만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동물의 손톱, 비늘, 뼈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그 애의 목덜미에 핏줄을 타고 독기가 번져 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나쁜 게 들러붙은 건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소독이라도 했어야 하나. 하지만 어차피 알코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었다. 본체를 잡을 때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은영은 걱정스러웠다. 본체로부터 멀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 학교에는 아무래도 뭔가가 있다. 출근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다. 안은영은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었다. 은영의 핸드백 속에는 항상 비비탄 총과, 무지개색 늘어나는 깔때기형 장난감 칼이 들어 있다. 어쨌서 멀쩡한 30대 여성이 이런 걸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속이 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사실은 멀쩡하지 않아서겠지. 안은영, 친구들에게는 늘 '아는 형'이라고 놀림받는 소탈한 성격의 사립 M고 보건교사, 그녀에겐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제부터였냐면, 원래부터라고 할까. 은영은 아주 일찍 자신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명료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열 살 무렵이었다. 엄마가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산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좋아라 부엌 벽을 깨부수려 할 때, 힘껏 만류한 적이 있다. 이 구조 이대로그가 좋으니 벽지나 바르자고, 괜히 번거롭게 여기저

기 혈고 리모델링을 하면 아빠 집에 가서 살겠다고 협박을 했다. 벽 속에는 얼굴은 좀 상했지만 친절한 아줌마가 있었다. 엄마가 알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열 살의 은영이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말아 먹을 때면, 벽 속의 아줌마는 조용히 웃으며 내려다보곤 했다. 그 눈길에 적의가 없었으므로 괜찮았다. 적의와 적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은 은영 같은 사람에게 일찍 발달할 수밖에 없다.

꼭 죽은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었다. 산 사람들이 더 기분 나쁜 걸 많이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이 학교에 떠다니는, 공기 가득한 나체의 환영들 같은 것 말이다. 아아, 사춘기 애들은 정말 싫어. 은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깔때기 칼로 휘휘, 아이들의 야한 상상을 휘저어 없앴다. 벌써부터 취향이 가지가지기도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은영이 보는 것은 일종의 엑토플라즈, 죽고 산 것들이 뿜어내는 미세하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입자들의 응집체다. 미색 젤리 같은 응집체는 종류와 생성 시기에 따라 점성이 달랐다. 죽은

것들은 의외로 잘 뭉치지 않는다. 산 것들이 문제다. 2차 성징의 발현이란 짓궂고 지겨웠다.

장난감 칼과 총에 은영 본인의 기운을 입히면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었다. 비비탄 총은 하루에 스물두 발, 플라스틱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이집트산 앙크 십자가와 터키의 이블 아이, 바티칸의 묵주와 부석사의 염주, 교토 신사의 건강 부적을 더하면 스물여덟 발, 19분까지 늘릴 수 있다. 보건교사 안은영의 삶은 이토록 토테미즘적이다.

몇 년 전까지는 대학 병원에 있었다. 전문 퇴마사로 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야 했고, 키트라인 밑이었는데도 간호대에 철썩 붙어서 주옥 병원에 있었다. 병원도 학교도 드글드글하기로는 매한가지였다. 왜 하필 간호사를 직업으로 골랐을까. 아니, 아니다. 해가 갈수록 더 느끼는 점이지만 사람이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고르는 것 같다. 사명 같은 단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수

금하고 받아들였다기보단 수월한 인생을 사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게 맞겠다. 병원에 있을 때는 힘든 파트만 다녀서 지금보다도 더 너털너털했다. 몇 년쯤 하고 나니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게 벅찼다. 그래서 대학 때 따 놓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호러와 에로 중에 고르라면, 단연 에로다.

그런데 이 학교에 에로에로 젤리들 말고, 학생들 목에 뭔가를 박는 사악한 무엇이 있다. 어쩐지 발을 들이는 순간 음습하더라니. 꼬인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다.

가운 안, 허리 뒤쪽으로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을 꽂고 은영은 보건실을 나섰다.

“그러니까, 마르고 안경을 쓰고 푹 부러지게 생긴 남자 애였어요. 개를 조퇴시켜야 하는데.”

2학년 1반 담임, 한문 과목, 홍인표는 지난 학기에 새로 와서 아직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한심

한 눈으로 바라봤다. 다른 층 선생님들은 보건교사의 얼굴
조차 잘 익히지 못해서 식당에서 마주치면 데면데면해하는
듯했다. 지난번 선생님은 너무 적응을 잘해서 보건실을 가
십의 온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젊은 선생은 주변머리가 너
무 없다. 고2 남자애들이 다 마르고 안경 쓰고 그렇지, 누
굴 찾는단 말인가.

“불렀는데도 막 급하게 가 버려서요.”

아, 똑 부러진 인상이라면 혹시 승권인가. 평소엔 제법
성실한 축인데 오늘따라 흐트러져 보였다.

“개가 많이 다쳤던가요?”

“음, 부어오르는 속도가 신경 쓰이는 데다 열도 곧 심하
게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보냈으면 하고요.”

“뭐에 물렸는데요?”

“아,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나빠 보여서…….”

가장자리긴 해도 서울인데 아주 위험한 벌레나 뱀 같은
게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초심자라 지나치게 조심하는 걸

까? 하지만 이 보건교사의 얼굴은 전혀 꼼꼼하지 않아 보이고, 어딘가 미숙하고 미덥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인표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라고 무시하는 착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선생님들의 얼굴에 거짓말하는 학생의 표정이 떠오를 때는 기민하게 알아채는 편이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표는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내지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보건교사가 불렀다.

“선생님, 다리 다치셨어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 아뇨, 오래전에 다친 겁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인표는 사실 가십을 몰고 다니는 가십 제조기였는데 재단 집안인 데다가 사실상 다음 세대의 실세이고 미혼이라 더욱 그랬다. 보건실은 가십 폭풍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것만 두고도 수십 가지 버전의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중 하나도 듣지 못했다니 말이다.

끔찍한 사고였지만, 돌아보면 여러모로 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인표의 할아버지는 사립학교 재단뿐 아니라 규모 있는 사업을 몇 개 굴리는 큰손이었고, 인표는 가장 사랑받는 손자였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한 대쯤은 몰래 살 수 있는 용돈을 받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인표가 탔던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로 찌그러져 들어갔다. 그나마 버스가 전속력이 아니었던 게 다행이었다.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다가 다시 짜 맞춰졌다. 팔다리에 철심을 꽂았다 뺐다 하며 두 자리 숫자의 수술을 했지만, 한쪽 다리는 사고 이후 끝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되었다. 그래도 한쪽 다리를 저는 데서 끝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몸은 물론 얼굴에도 흉터가 남았는데, 수술이 잘되어서 다들 보조개인 줄 알았다.

“가스파르 올리엘을 닮으셨네요!”

지나치게 성격이 쾌활했던 맞선 상대가 웬 프랑스 배우를 가져다 댈 정도였다. 검색해 보니 꽤 잘생긴 배우라 기

분은 좋았지만 얼굴의 흉터 말고는 딱히 닮은 점을 찾기 어려웠다. 어쨌든 흉은 흉일 뿐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온몸이 쭈셨고 이런저런 상흔들을 되짚을 때면 심란했다. 인표는 언젠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오토바이를 몰래 살 수 없도록 용돈을 정말 조금만 줘야지, 하고 늘 마음먹고 있었다.

재단 집안이면 보통 다들 아니꼽게 생각하고 재수 없어하기 마련이지만, 한적한 교과목을 맡은 데다 다리를 저는게 나이 든 선생님들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이끌어 내서인지 교사 사회에 부드럽게 받아들여진 편이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학교 건물 자체다. 인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낡은 도면을 펼쳐 놓고 들여다보곤 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늘 공간이 부족했다.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모양인 걸까. 해방 직후에 지어졌는데 어째서 지하 3층까지나 있지? 계다가 쓰고 있는 건 지하 1층까지다. 창고 용도로 아주 일부만 쓰고 있다. 학생회에서 자꾸 지하

층을 동아리 공간으로 내달라고 조르는데, 인표는 웬지 내키지가 않았다. 합당한 요구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지하층 입구를 동여매고 있는 저 쇠사슬들을 쉽사리 풀고 싶지가 않았다. 인표의 팔뚝만큼 굵은 쇠사슬들이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다른 재산 문제는 다 변호사에게 맡겨 놓고 학교에 대해서만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학교를 계속 유지해라. 그 땅에는 학교 말고 다른 걸 세우면 안 된다. 건물도 다시 짓지 마라. 인표를 선생 시켜, 꼭 선생 해야 해.”

그 유지를 받들어 교직을 택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신경을 써 지은 이 학교에 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이들이 우박처럼 떨어졌다. 10대 자살률이 워낙 높은 나라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각종 사고와 비행의 빈도 역시 상당히 심각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니 갑자기 더 신경이 쓰였다. 승권이 녀석, 무슨 바람인지 몰라도 붙잡아 앉혀야겠다. 인표는 열심히 불편한 걸음을 옮겼다. 인표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표의 그런 걸음걸이가 어쩐지 유쾌하다고까지 생각했다. 마치 한쪽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더 길어서, 리듬감 있게 스텝을 밟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다.

혜현은 옥상에서 땡땡이를 치고 있었다. 며칠 말린 옷에서도 장마철의 킁킁한 냄새가 나서 간만에 교복을 입고 왔더니, 통기성이라고는 고려하지 않은 합성 섬유라 더 불쾌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 다행이었다. 안전을 이유로 옥상 전체에 높은 철조망을 둘러쳐서 풍경은 조금 흉물스러웠지만, 철조망 사이로도 바람은 불었다. 옥상을 아예 봉쇄했을 때는 애들이 자물쇠를 깨고 또 깬었다. 선생님들도 결국 포기하고 개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휴식 공간이 이렇게나 부족한데 옥상까지 빼앗아 가면 안 되지, 비록 직접 자

물쇠를 깨지는 않았지만 혜현은 옅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언니, 아까 승권이 오빠가 언니 찾던데요?”

동아리 후배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뭐 때문에?”

“글쎄요.”

또 나도 모르게 승권이 물건을 훔겼나. 이어폰이던가, 만화책이던가. 혜현은 잠시 스스로의 혐의점을 찾았다.

“알았어, 고마워.”

후배가 내려간 후 한참이 지나서도, 옥상에서 내려가기 싫었다. 습기가 가득한 건물 내부가 청소하지 않은 어항처럼 느껴졌다. 숨을 못 쉴 정도잖아. 이 정도라면 아가미가 필요하다고.

1층에서 농구부 주장이 손을 흔들었다. 혜현은 별생각 없이 마주 흔들어 주었다.

안은영은 아까의 한문 선생을 보호하고 있던 거대한 에

너지 장막에 감탄하고 있었다. 보건실에만 박혀 있다 보니, 가까운 데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누군가 그 선생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남긴 게 틀림없었다.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다리를 다쳤지? 희한한 일이다. 친해지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만약 사태가 심각해지면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거의 걸어 다니는 행운의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탐났다. 역시 처녀 귀신일까? 남자에의 목에 박혀 있었던 것은 손톱일지도 모른다. 하도 예상 밖의 것들이 튀어나오는 세상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든 간에 지하에 묻혀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았다. 허리 뒤에 꽂아 놓은 플라스틱 총칼을 확인하고, 은영은 중앙 계단으로 향했다. 지하실 입구엔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아 둔 모양이었다. 은영은 수위실에 빼꼼 고개를 들이밀었다.

“저 지하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수위 아저씨가 허리띠에 달린 열쇠 뭉치에 손을 얹으면
서 물었다.

“지하는 왜요?”

“음, 학생들이 자꾸 갑자기 뭐가 나고 간지럽다고 연고
를 바르러 오는데 곰팡이성 피부병 같아 보여서요. 뭐 위험
한 게 있나 확인을 좀 하려고요. 빌려 주시는 김에 손전등
도 빌려 주시면 좋겠어요.”

“지하는 해마다 한 번 소독 때만 열 수 있어요. 그때도
외부 소독 업체만 들어가고 저도 못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절대 개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곰팡이가 슬죠. 이대로라면 상부에 보
고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저만 살짝 들
어갔다 올게요. 제가 뭘 하겠어요. 잠시 들여다보는 정도
죠.”

은영은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되도 않는 눈웃음을 쳤
다. 수위 아저씨는 끝내 찻찻해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곧

녹슨 사슬이 풀렸고, 오래 갇혀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마스크라도 가져올걸, 은영은 이러다 자기야말로 병에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웠다.

입구부터 쉽지 않았다. 오래된 걸로 보아 졸업생들이 버리고 갔음직한 사념들이 좀 있었다. 폭력성과 경쟁심의 덩어리들, 묵은 반목과 불명예와 수치의 잔여물들이 어두운 곳에 누워 있었다. 은영은 길게 한숨을 쉬곤, 손목 스냅으로 장난감 칼을 길게 폈다. 그리고 더러운 덩어리들을 베기 시작했다.

승권은 어지러웠다. 보건 선생님이 염증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겁을 주려고 한 소리가 아니었나 보다. 자꾸 시야가 흐려졌다. 열이 오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몇 번 안경을 뺐다가 다시 끼도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럴수록 화가 났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 또 안 되려나 싶었다. 원래도 간지러

운 고백 같은 건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상태라면 정말 앞뒤 다 자르고 좋아한다고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고백하고 나서 쓰러지면 그건 그것대로 불만하겠구나. 발뒤꿈치가 자꾸 끌렸다. 계다가 발바닥에 체액이 묻혔는지 기분 나쁜 물컹함이 있었다. 발바닥 전체가 물집처럼 느껴졌다. 승권은 컨디션 유지를 잘하는 편이라 이렇게까지 아픈 건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토하거나 기절하지만 않으면 돼. 아니, 토하지만 않으면 돼. 인사를 해 오는 친구들이 자꾸 승권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팬찮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혜현이 옥상에 있다고 했다. 계단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세 배는 높은 것처럼 느껴졌다.

인표는 승권을 찾으러 체육관으로 가고 있었다. 항상 거기 있는 멤버는 아니지만, 가끔 머리를 식히려고 운동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파악이 아주 나쁘지는

않군, 스스로 흐뭇해하던 참이었다.

중앙 계단을 지나치는데 지하실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인표는 리드미컬한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열었지? 열 때가 아닌데. 할아버지는 지하실에 관한 사항만 열 페이지 썸 되는 것을 반복해서 읽게 하셨다. 요약하자면 열지 말라는 것이었고, 소독 업체도 바꾸지 말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독 업체가 문을 닫아서 이삼 년 전부터 다른 곳에 맡겼더니 비용이 5분의 1도 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비싼 소독업체를 왜 고집하셨던 걸까? 인표는 소독 때만 되면 궁금했다.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예정된 소독이 없는데 아래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계단 위에서 불리 볼까 하다가 인표는 그냥 내려섰다.

흰 옷자락이 펄럭일 때는 잠시 흠칫했지만, 손전등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던 건 보건 선생이었다. 한 손에는 손전등, 한 손에는 웬 무지개 색 깔때기를 들고 허공을 정신없이 휘젓고 있었다. 아아아, 역시 이상한 여자구나. 선을 볼

때마다 종종 작동하던 ‘이상한 여자 경보기’가 마음속에서
세게 울렸다.

“안 선생님, 뭐하세요?”

은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래, 놀라야 정상이지.

“어……, 운동요?”

스스로도 저 말을 하면서 확신이 없는 게 분명했다.

“무슨 운동을 지하실에서 하세요?”

땀방울이 맺힌 이마 안쪽에서 별로 주름이 없는 뇌가 미
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보시다시피 신종 에어로빅인데, 학생들 볼까 민망
해서요.”

“그럼 댁에서 하셔야죠.”

인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은영은 선뜻 지하실 밖으로
나올 기세가 아니었다. 인표는 문득 은영의 얼굴이 점점 진
지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다. 어두운 곳에서 봐서 그런
지 몰라도 차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신 나간 사람의 것으

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뭐 찾아요?”

인표가 어떤 대답을 바라는지 스스로도 짐작 못하면서 물었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찾는 게 있어요.”

은영이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사립학교에 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들켜서 잘리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다. 은영은 또 어딘가에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은영에게 없는 건 많았지만 일복만은 항상 있었다.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할 것이 뻔했다.

“그럼 같이 찾읍시다.”

인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인표는 학교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왜 할아버지가 이 학교에 대해, 명문 사립도 아닌 데다 부동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땅에 대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이해하질 못했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땅 밑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보물찾기를 종종 했다. 할아버지는 인표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맞춰 숨겨 두곤
하셨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 느낌이 안 좋은 보건 선생을 잘
라야지.

혜현의 가는 손가락이 철망에 살짝 걸려 있었다. 투명
매니큐어가 그 끝에서 반짝, 빛났다. 손톱 밑의 부드러운,
건강한 분홍색이 눈에 들어왔다. 훈풍에 플레어스커트가
살짝 부풀어 올랐다 내려앉았다. 본인은 교복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승권이 보기에 하복의 플레어스
커트가 혜현만큼 어울리는 여자애는 없었다.

좋아하는 여자애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어지러웠
다.

저 즐거워 보이는 생물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안으로

삼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승권은 다시
금 확신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는 이 타
이밍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해파리.”

혜현이 돌아보았다. 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해파리라 부
르는 게 아니었는데……. 정작 혜현은 돌아보는 순간,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웃었다. 시선을 멀리 던지고 있을 때는 무
표정했는데 승권을 보자마자 그렇게나 풍부한 표정이 솟아
났다. 승권은 그 눈만 봐도 혜현이 얼마나 자신을 반가워하
는지 언제나 알 수 있었다.

“나 또 뭐 까먹었어?”

“아니, 그런 거 아냐.”

“근데 왜 찾으러 다녔어?”

“할 말이 있어서.”

“너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엉망이다. 아파?”

승권은 자기 손이 아주 차가운 걸 느끼면서, 엉망인 일